

지역경제 수출만 'マイ너스 행진'

석유제품 -46.1%, 철강 -37.2% 등 큰폭 감소

올 3분기까지 제조업 생산·건설·유통 회복세

제조업 생산이 1년 만에 증가하고 소비가 늘어나는 등 광주·전남지역 경제지표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제 무역 전체의 영향으로 전기·전자, 석유류, 화공품, 철강 등 주력 품목이 부진해 수출만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등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의 광주·전남지역 경제지표를 보면 제조업 생산이 3.1%로 지난해 3분기(3.8%) 이후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소비도 백화점 판매액 지수가 5.9% 증가하고 노후차 보상으로 자동차 판

매가 늘어나면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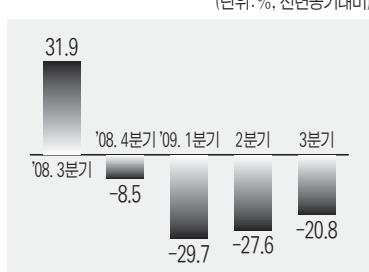
건축착공 면적은 지난 8월 60.8%, 9월 47.9% 급증한 터에 3분기에도 21.9%나 늘었다. 취업자 수도 공공근로의 영향이지만 3분기에 3만6천명이 증가했고 미분양 아파트 감소속에 주택매매 가격도 0.6% 올랐다. 반면 소비자물가는 1.8%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수출은 지난해 3분기 31.9% 증가 이후 4분기 -8.5%, 올해 1분기 -29.7%, 2분기 -27.6%, 3분기 -20.8%

무역량 감소로 인해 광주·전남의 주력 수출 품목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품목별로는 광주 전체 수출의 47.1%와 33.2%를 차지하는 전기·전자제품과 수송장비가 전년 동기대비 각각 -13.5%와 -2.7%를 기록했다. 전남도 전체 수출의 80%가 넘는 1~3위 품목인 석유제품(-4.1%), 화공품(-26.2%), 철강제품(-37.2%)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가간 물론 수출 감소폭에 비해 수입 감

■ 호남권 분기별 수출 현황 (단위: %, 전년동기대비)



소폭이 더 커 광주의 경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역경제가 완전히 회복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생산과 소비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이미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수출만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수출 증가가 중요한 이유는 내수시장 규모가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수출이 늘어야 생산 등 전 분야의 지표를 꾸준히 끌어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전망에서 수출은 세계경제의 회복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량 및 단가가 모두 증가세로 전환돼 연간 6.1%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대우건설 외국계 새주인 맞나

오늘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금호아시아나 유동성 3조 확보

대우건설의 새 주인이 2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 입찰에 참가한 3곳을 대상으로 입찰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23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 10월 마감된 입찰에는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가 참여한 자 베즈파트너스와 미국계 부동산개발업체인 AC개발, 러시아계 기업이 참여한 콘소시엄 등 3곳이 최종 제안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자베즈파트너스의 인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 3곳은 모두 주당 2만원 안팎의 인수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종 가격은 이들이 제시한 금액에서 5~10% 이내의 조정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룹 측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종 입찰 가격조정폭을 제시한 금액의 5% 이내로 하자는데 입찰 참가자 중 2곳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한 곳도 일정한 범위에서 가격 조정폭을 협의하기로 한 만큼 향후 협상 과정을 통해 제시한 가격의 5~10% 이내 수준에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3개 입찰 참가자 모두 국내 및 글로벌 대형 로펌을 고용해 대형인수 자문단을 구성, 5주간 예비 실사를 진행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면서 일부 입찰 참여 콘소시엄이 실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한편, 업계와 금융권은 금호아시아나가 대우건설 매각과 그동안 계열사 및 자산매각 등을 통해 6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珉)

우선 대우건설 매각으로 일단 3조 원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입찰 참가자들은 모두 주당 2만원 표출이 있을지도 관심사다.

홍씨는 "국세청이 갤러리 거래처를 협박하거나 강압팀을 동원해 남편의 사퇴를 수차례 요구했다"며 "거래처 사람에게서 10월 말까지 검찰이 인지수사 형식으로 남편을 수사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미술품을 고가에 사도록 한 혐의(뇌물수수·알선수재 등)로 안씨를 구속했다. /연합뉴스

■ 금호아시아나 유동성 확보 현황

계열사	매각내용	확보금액
대우건설	1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3조3천억원(추산)
대한통운	3월 유상감자	1조4천억원
금호생명	11월 칸서스자산운용에 매각	4천억원
서울고속터미널	10월 코이에프지에 매각	2천705억원
금호타이날	9월 대한통운에 매각	2천190억원
아시아나DT	8월 미국 TGY에 매각	800억원
금호오토리스	6월 국내 금융사에 매각	195억원
베이징루프트한자	8월 중국 유한회사에 지분 매각	500억원
금호엔터카	11월 KT, 롯데 등 5곳 입찰 참여	3천~4천억원(추산)
베트남 금호프리자	외국 호텔 사업자 지분 매각 추진	1천500억원(추산)
	총	6조3천억(추산)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지난 2006년 6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우건설을 인수한 지 3년 6개월 만에 대우건설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을 23일 결정한다. 사진은 서울 종구 서울역 근처에 위치한 금호아시아나빌딩(옛 대우빌딩).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시 산학연 협의회

오늘 광기술원서 발족

광주시의 첨기업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산업체와 대학교,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의회가 23일 발족한다.

이 협의회는 총괄위원회와 자동차, 전기, 광통신, LED, 광용융, 디자인, 금형, 신재생에너지, 우리밀산업 등 9개 산업별 협의체를 두고 있다.

협의회의 주된 사업으로는, 산학연 간 소통의 장 마련, 광주 R&D특구 내 콘텐츠 박물관, 광주사이언스파크 조성 등 신규 사업 기획, 핵심·애로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공동협력 등이다.

한편 협의회 발대식은 23일 오후 4시 한국기술원 3층 대회의실에서 박광태 광주시장, 김용환 시 경제산업국장, 전영복 산학연 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겨울상품 최고 70% 할인

백화점 3社 27일부터 정기세일

22일 지역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광주신세계·롯데·현대 등 백화점들은 오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10일간 세일에 나선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은 바이어들이 패션에서 생활 부문까지 업선해 한정물량으로 준비한 '바겐스타' 상품전'을 열어 토끼털 조끼와 코트, 패딩 점퍼 등을 특가에 판매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국세청, '미술품 강매' 안국장 징계 수순

국세청이 미술품 강매 혐의로 구속된 안원구(49) 국장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검찰이 안 국장을 구속함에 따라 항후 검찰의 수사 방향에 어떻게 흘러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치국 국장에 대한 수사가 한상률 전 청장의 '학동미술 그림 로비'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는지 정보라인을 가동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안 국장은 그림 로비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 사건의 발설자로 지목돼 대기발령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학동미술 그림은 부인 홍모씨가 운영

른 시일 내에 내릴 수도 있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안 국장을 구속함에 따라 항후 검찰의 수사 방향에 어떻게 흘러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치국 국장에 대한 수사가 한상률 전 청장의 '학동미술 그림 로비'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는지 정보라인을 가동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안 국장은 그림 로비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 사건의 발설자로 지목돼 대기발령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학동미술 그림은 부인 홍모씨가 운영

하는 개인갤러리에 매물로 나왔다. 또 안 국장은 대기발령 이후 국세청이 자신의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사 과정에서 과거 관행에 대한 폭로 등 국세청에 대한 불만 표출이 있을지도 관심사다.

홍씨는 "국세청이 갤러리 거래처를 협박하거나 강압팀을 동원해 남편의 사퇴를 수차례 요구했다"며 "거래처 사람에게서 10월 말까지 검찰이 인지수사 형식으로 남편을 수사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미술품을 고가에 사도록 한 혐의(뇌물수수·알선수재 등)로 안씨를 구속했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364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2 5 7 14 16 40	4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2,531,914,800	4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45,620,087	37
3 5개 숫자 일치	1,340,702	1,259
4 4개 숫자 일치	53,421	63,195
5 3개 숫자 일치	5,000	1,043,314

팝콘복권

(제187회)

당첨번호	당첨금(원)
1 5억	399,823
2 5조	31,8147
3 1천만	881,565
4 1백만	79,819
5 50만	4,274
6 2천	92
7 2백	36
8 100만	90
9 50만	5
10 1천	4

식 50%+1주를 주당 2만원에 매각하면 그룹에는 3조3천억원의 자금이 유입된다. 여기에 계열사 및 자산 매각 등을 통해 3조원 가까이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미기자 dok2000@kwangju.co.kr

코스피지수

1,620.60 (+48.61)

코스닥지수

479.43 (-2.14)

금리 (국고채 3년)

4.26% (-0.01)

원·달러 환율

1,159.00원 (-1.30)

※수치는 20일 기준 13일과 비교

수완 메디컬 센터

- 1층 약국 *외환은행 입점 확정